

##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 인간성과 물질성의 내부 작용

홍은숙\*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
3.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경계의 무력화 방식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고대에서부터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이해는 변화하는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었다. 이 글은 고대 원자론을 발전시켜 SF-다매체 드라마에 나타난 물질성과 인간성을 동일 지평에서 고찰한다. 물질세계의 존재론적 비결정성은 고대 과학, 철학, 문학에서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논의되고 재현되어왔다. 양자역학의 물질세계에서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하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부교수

고 관심을 가지면 입자처럼 행동한다. 존재론적 비결정성의 관점에서, 관측과 관심이라는 상호작용은 물질세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현상을 낳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성과 물질성의 관계적 존재론’과 ‘인간과 세계의 분리 불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 이 글은 SF-다매체 드라마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양자역학의 존재론적 비결정성으로 인간성과 물질성을 종합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무대배경과 등장인물이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향이 아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인간(등장인물)은 자연(무대배경, 무한우주)과 일체인 인간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극적 행동은 무한우주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그 일부로서 ‘내부 작용’이다. 우주비행사 톰은 무한우주에서 확정된 경계 없이 그리고 시공간의 특정 없이 사건들의 나열과 얽힘에서 재구성되어 매번 새롭게 등장한다. 톰의 몸과 무한우주는 내부작용으로 서로를 구성한다(몸↔무한우주).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경계 무력화 방식은 인간성과 물질성의 내부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의 시공간성, 몸들의 경계, 사건들의 경계, 그리고 존재자들의 경계는 결정되더라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무한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하는 현상들은 원자라는 최소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의 끊임없는 여정을 재현한다. 〈독수리자리 너머〉는 무한우주에서 이러한 여정을 통해 본래의 인간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SF-다매체드라마의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

주제어: 내부작용, 〈독수리자리 너머〉, 무한우주,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

## 1. 들어가는 말

고대 신화, 문학, 철학에서부터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이해는 변화하는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었다. 이 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자론을 포함한 고대적 논의를 발전시켜 양자역학적 물질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동시 존재성’을 인문학적 상호관계성,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최근 양자역학적 논의를 포함한 과학적 사유가 인문학 담론의 장에 들어 오면서,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활발하게 다양한 매체와 문예 장르에서 다채롭게 사유되고 있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법칙은 물질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작용하는 물질의 법칙과 동일 지평에서 파악될 수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문학 서사의 변함없는 주제인 세상의 시작(삶)과 끝(죽음)에 이르는 부단한 생성, 변화, 차이, 예측, 중첩, 얽힘에 관한 것이다. 양자역학의 출발 즉, 세계의 시작은 ‘빛’이다. 양자역학의 빛은 말씀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빛의 물질적 특성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예를 들면, 입자는 돌과 같은 물질이고 파동은 소리와 패턴(pattern)과 같은 물질이다. 입자는 여기 ‘혹은’ 저기에서만 존재하지만, 파동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언어학과 철학에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을 표현하는 명확한 언어와 개념은 없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물질은 실제 물질세계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언어와 철학적 사상과 개념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과학기술시대의 다양한 문예 장르들은 양자역학적 동시성을 담지하는 새로운 서사와 문예 형식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다매체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SF 서사물과 같은 과학기술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들은 양자역학적 물질성을 서사화하고 예술적 의미를 부여

하여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은 SF-다매체 드라마에 나타난 동시 존재성, 상호관계성, 불확정성의 서사 연구를 통해 물질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연계한다.

물질세계와 인간세계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Democritus)의 원자론에서부터 구체화 된다. 데모크리토스에서 시작한 원자론과 무한우주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와 고대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Titus Lucretius Carus)를 거쳐 최근 양자역학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Herodotus*) 41장에서 우주와 원자와 공간의 무한함을 피력하였다.<sup>1)</sup>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De rerum natura, On the Nature of Things*)에서 “그것은 가장자리를 갖지 않으며, 그래서 끝과 한계가 없다”며 우주와 공간에 무한의 서사를 부여했다.<sup>2)</sup>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무한함은 풍부함과 가능성이었고, “무한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탐구 대상”이었다.<sup>3)</sup> 고대에서부터 무한우주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과학적 개념은 인간성을 탐색하는 서사와 예술적 양식을 갖추었다.

이 글은 고대의 원자론적 사유가 양자역학을 포함한 최근의 과학적 사유와 연결되는 부분에 주목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안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존재한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띄엄띄엄 궤도로 돌고 있다. 양자(quantum)는 ‘띄엄띄엄 있다’(퀀타이즈, quantize)라는 뜻의 불연속적 개념을 갖는다.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돌고 있는 미시세계에 들어서면, 입

1) Epicurus, *Letter to Herodotus*, trans. Robert Drew Hicks, 1925.

2)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L. 964. 이후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행수를 밝힘.

3) Gilles Deleuze, “Lucretius and Naturalism,” *Contemporary Encounters with Ancient Metaphysics*, trans. Jared Bly, Edinburgh U, 2017. pp. 245-253.

자 형태만 지닐 수 없다. 전자는 특정 공간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면서 퍼져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특정 궤도에 퍼져 있다. 파동은 ‘진동하면서’(vibrant, 생동하는)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것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물리적 현상은 무한우주를 서사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이다.

고대에서부터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원자(atom,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는 양자역학의 시대에 이르러 파동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텅 빈 하늘은 무(nothingness)의 빈 곳(the void)이 아니라, 원자들(물질)이 ‘요동치는’(vibrant, 생동하는) 분주한 곳이다. 고대 그리스 음유시인 호머(Homer)의 『오디세이아』(*The Odyssey*)에서 올림포스 신들의 거처는 “언제나 구름 없는 대기가 덮고 있지요, 그것은 널리 빛을 흩뿌리고 웃지요”에서처럼 ‘원자들이 요동치는 하늘’이며, 인문학적 상상력과 가능성이 가득한 곳이다.<sup>4)</sup>

고전물리학의 관점에서 진공은 물질이 없는 것으로 에너지가 없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제로-에너지’와 ‘제로-물질’의 존재를 의문시한다.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확정적으로 무(nothingness)가 될 수 없는 비결정 상태이다. 플라톤(Plato)은 『파이돈』(*Phaedo*)에서 무한한 진공 속에 유한한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였다.<sup>5)</sup> 고대의 논의에서부터 물질세계(인간, 세계, 우주)의 ‘존재론적 비결정성’(ontological indeterminacy, 자유의지의 근원)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문학(서사시) 모두에서 논의되고 혹은 재현되었던 것으로, 인간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 모두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활용되었다. 비결정성은 자유의지의 근원으로, 인간과 세계의 비결정성은

4) Homer, *The Odyssey*, trans. Emily Wilson, W. W. Norton & Company, 2018, BK6, L. 42-46.

5) Plato, *Phaedo*, 109a.

역동성, 개방성, 가능성, 관계성, 존재하는 모든 것(물질)의 근원(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SF-다매체 드라마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양자역학의 존재론적 비결정성으로 인간성과 물질성을 종합한다.

이중-슬릿 실험은 전자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동시성을 보여준다. 전자는 이중 슬릿을 통과해 물결처럼 벽에 닿고, 간섭무늬가 생긴다. 하지만, 이 상황을 사진기로 관측하면 벽에 두 개의 줄무늬가 생긴다. 사진기로 관찰 혹은 관측을 하기 전에는 파동이지만, 관측으로 입자가 된다. 즉, 전자는 파동성과 입자성 모두를 지닐 수 있다. 거시세계에서 관측으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미시세계에서 빛(입자)에 맞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처럼, 보는 행위가 대상(objects)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바라보는 것’ 혹은 ‘관측하는 행동’이 물질세계를 변화시키는 물리적 현상에서 인문학적 ‘상호관계성’을 도출한다. 물질 세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혹은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서로 바라보고/ 관측하고/ 관심을 가지면 입자처럼 행동한다. 상호관계성의 관점에서, 관측/ 관심/ 관계/ 만남이라는 상호작용하는 극적 행동은 물질세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성과 물질성의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과 ‘인간과 세계의 분리 불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 이 글은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동일 지평에서 사유하여, 인간성과 물질성의 관계적 존재론에서 과학기술시대의 인간 삶의 방향성과 대안적 사유를 타진한다.

이 글은 최근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서 발표되고 있는 다매체 드라마를 텍스트로 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독수리자리 너머> (*Beyond the Aquila Rift*)는 영국의 SF 소설가 엘래스티어 레이놀즈(Alastair Reynolds)의 첫 단편 모음집 『지마 블루와 다른 이야기

들』(*Zima Blue and Other Stories*, 2006)에 실린 〈독수리자리 너머〉를 원작으로 하여,<sup>6)</sup> 넷플릭스(Netflix)의 〈러브, 데스+로봇〉(*Love, Death+Robots*, Season One)에 포함된 작품이다. 〈독수리자리 너머〉는 원작자, 각색자, 블러 스튜디오(Blur Studio), OTT 플랫폼 관계자 등 전 지구적 협업으로 제작된 SF-다매체 드라마이다. 이 글은 〈독수리자리 너머〉의 무대배경인 무한우주에서 인간성과 물질성의 끊임없는 내부 작용(intra-action)과 얽힘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세계의 분리 불가능성, 동시 존재성, 불확정성, 비결정성, 상호관계성을 통해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동일지평에서 고찰한다.

## 2.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사물의 변화는 인간성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고대 신화와 철학에서부터 물질성과 인간성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었다. 플라톤은 인간의 부상을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올림포스 신 중 유일하게 육체노동을 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Hephaestus), 음악을 만든 마르시아스(Marsyas)와 오르페우스(Orpheus)에서 찾았다.<sup>7)</sup>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tekhne, techne)는 공업 생산(industrial production)과 순수(fine) 예술, 즉 상징적 예술을 성격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의 대

6) 엘리스티어 레이놀즈는 우주과학자 출신의 공상과학소설가이다. 현재까지 19권의 장편과 70편 이상의 소설을 발표했고, 넷플릭스와 협업하여 〈러브, 데스+로봇〉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할 〈독수리자리 너머〉는 〈러브, 데스+로봇〉 시즌1의 한 에피소드이다. (레이놀즈의 공식 홈페이지 참조)

7) Lewis Mumford, *The Myth of the Machine Volume One: Technics and Human Development*, A Harvest Book, 1967, p. 13.

부분을 통하여 이 두 측면은 분리될 수 없었다. 하나는 객관적 조건과 기능을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sup>8)</sup>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아레테(Arete, 미덕, 좋음, 탁월함)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완성된 상태이며, “기예(technē)는 ... 종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sup>9)</sup>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 삶의 지향점인 아레테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체인 테크네의 실현에서 가능했다.

구석기인이 제작한 활과 화살은 자연의 어떤 것보다도 비슷하지 않은 순수 추상이다. 활과 화살은 원시 기술의 3대 물질인 나무, 돌, 동물 내장으로 제작된 무기이며 악기다. 궁술의 신이며 하프를 연주하는 아폴론(Apollon)의 활은 테크네를 구현하는 상징이다. 테크네는 인간의 ‘자기이해’ 방식으로, 인간이 창조 활동을 하면서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인간세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기술과 예술을 통한 인간성의 표현에 있다. 인간의 본성은 기술적 그리고 예술적 표현을 통한 자기확인, 자기변형, 자기이해의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본성의 이해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고대 신화와 원시인류에서부터 인간성은 물질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도구’와 ‘시신을 매장하는 의례’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구라는 물질과 매장이라는 의례는 관계성에서 그리고 동시성에서 의미가 완성된다. 의례적 질서라는 인간의 법칙은 기계작동원리와 사회시스템의 기계적 질서와 불가분의 것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법칙이기도 하다.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은 신화적 신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단군신화는 곰과 인간의 호환 가능성을 서사화한 것이다.

8) Ibid., p. 20.

9) Aristotle, *Ethica Nicomachea*, Clarendon Press, 1920, BK1.



단군신화를 과학적 신비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단군신화는 물질 에너지의 호환 가능성,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화적 신비와 과학적 신비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시 존재성을 갖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는 분리 불가능한 존재로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기 확인, 자기변형, 자기이해, 자기발견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으며 우주적 과정의 일부이다. 인간이 얼마나 풍부하게 사는가와 얼마나 많은 세계(우주, 물질, 자연)의 의미를 흡수하고 전달하는가는 별개의 영역일 수 없다. 인간의 불확실성, 비예측성, 비결정성, 창의성은 인간의 본성적 그리고 생물학적 복잡한 신경 구조의 본질적 기능들이다. 막스 뮐러(Max Muller)가 『과학의 사고』(*Three Introductory Lectures on the Science of Thought*)에서 서술했듯이, “우리 정신이 객관적 혼돈에 들어가 상상 속에서 재창조한 은유와 우주 신화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바깥의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름 짓는 일은 불가능”하였다.<sup>10)</sup> 초기 인류에서부터 생명의 불합리성과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는 인간의 자기표현, 자기이해, 자기발견과 무관하지 않았다.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성은 인간성과 물질성의 내부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양자역학의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고대에서도 사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었다. 레우키포스(Leucippus)와 데모크리토스에 의하면, 모든 것(인간, 자연 포함)은 파괴될 수 없는 무수한 물질 조각의 ‘지속적 충돌’과 ‘이후의 구성’ 그리고 ‘해체’로 환원할 수 있다. 원자들은 충돌과 이후의 결합을 통해 자연을 생산한다. 원자들은 생산에 있어서 창조적 주체가 아니고, 가장 최근의 충돌로 결정된다.

10) Mumford, op. cit., p. 157, 재인용.

이들의 고대 원자론은 ‘존재론적 사유,’ ‘물질의 고유한 수동성 개념,’ ‘외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인간’을 특징으로 한다.<sup>11)</sup>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물질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관찰자로 파악한 것은 고대 원자론의 한계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의 수동성과 결정론이라는 한계를 보였지만, 세계의 물질성과 무한우주의 가능성을 제시한 최초의 시도를 하였다.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종합하는 문학 서사는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에서 본격화되었다.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 3권에서 영혼과 육체의 원자가 교대로 정렬되어 있다는 데모크리토스 이론을 반박하고(L. 370-395), 정신과 영혼은 육체의 일부(L. 94-135)이고, 정신과 영혼을 물질적인 것으로 제시하고(L. 161-176),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한다고 표현하였다(L. 323-349). 루크레티우스의 인간성과 물질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머(Homer)와 헤시오드(Hesiod)의 서사시,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클리나멘(Clinamen)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수동성과 관찰자의 한계를 극복한다. 에피쿠로스의 ‘swerve’(휘어짐, 비켜남, 원자의 특이한 운동 이론, 클리나멘) 개념으로 데모크리토스의 결정론은 약화된다.<sup>12)</sup> 에피쿠로스의 원자 운동인 클리나멘은 ‘원자들이 직선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방향을 바꾸는 현상’으로 ‘물질의 능동적 행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에피쿠로스는 우주가 원자들의 무한한 수와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원자들은 직선 운동을 하지만, 클리나멘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현

11) Christopher Gamble, Joshua Hanan, &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24.6, 2019, p. 113.

12) 『사물의 본성』 2권 292행에서 클리나멘 용어가 사용되었다. 에피쿠로스 원자론에서 원자의 특이한 운동 이론인 클리나멘은 사선 방향의 운동, 편위, 이탈, 빗금 운동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의 이 글에서는 클리나멘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상으로 우주에 무작위성과 자유의지가 도입된다.

양자역학의 중첩과 얽힘을 ‘물질과 의미의 얽힘’으로 재해석한 캐런 바라드(Karen Barad)는 물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신유물론, 탈식민주의, 퀴어, 윤리와 인간성을 포함한 인문학적 이론과 개념을 새롭게 펼쳐낸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인간성과 물질성의 내부 작용’은 바라드의 내부 작용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의 관점에서, 인간은 세계의 불변하는 총체성을 거부하고 부분적으로는 구성하며 또한 관찰하는 바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 이 지점에서 존재론적 불확정성이 도출될 수 있다. 인간성은 세계와 끊임없이 내부 작용하면서 (재)정의하는 특정 방식이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를 수 없다.

양자역학과 물질성을 담지 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세계는 ‘무작위 운동’(pedesis), ‘지속적 과정’(ongoing process), 그리고 ‘관계’(relation)로 파악될 수 있다.<sup>13)</sup> 무작위 운동은 고대 그리스 비극 주인공의 운명처럼 우연적 행동도 아니고 미리 결정된 것도 아니다. 세계는 물질 결정론 혹은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만 들어 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 무작위는 예측 불가능한 운동이지만, 무작위 운동으로 물질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한다.

물질(사물, 세계, 우주)은 근원적으로 뒤얽혀진 상태로 남겨지며, 언제나 부분적으로 미결정적이고 즉흥적이다. 물질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 실체도 아니며, 불연속적 과정도 아니다. 물질은 관계적이고 내재적으로 자기-촉발적이다. 이때의 관계는 무작위 운동과 지속적 과정으로 비대칭적이며 평평하지 않다.

고대에서부터 논의된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신유물론이라는 인문학적 담론과 연계되어 물질성과 인간성의 상호관계성을 넓게 펼쳐내고 있다. 신유물론은 과학과의 소통

13) Gamble et al., op. cit., p 125.

을 통해 물질의 고유한 활동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인간과 비인간(주체와 객체)의 위계적 질서 혹은 주종의 경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신유물론은 절대적인 것, 존재의 불변적 구조,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유물론적 사유의 근원을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물질세계(원자)의 클리나멘 운동에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신유물론의 사상적 흐름에서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양자역학적 물질의 능동적 행위성(자유 의지, 클리나멘,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생각과 물질, 물질성과 인간성의 내부 작용을 종합하여 〈독수리자리 너머〉를 분석한다.

### 3.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경계의 무력화 방식

에피쿠로스의 클리나멘,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 그리고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의 동시 존재성에 근거하여 논의를 발전시키자면, 세계(무한우주)는 지속적 생성과 흐름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무대배경과 등장인물이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항이 아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인간(등장인물)은 자연(무한우주, 무대배경)과 일체인 인간이다. 즉, 이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은 물질적 우주의 경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과 일체인 인간을 가리킨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백과사전』(*EPS,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에서 유(類)를 구체적 보편으로 정의한다. 유(類)는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통일에 있으며, 주체의 구체적 실체가 유(類)다.<sup>14)</sup> 유적 존재로서 인간은 주체적 개별성을 넘

1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어서며, 자기 안에서 보편을 인정하고, 개체임을 통해 동시에 인간의 대표이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통일성(unity)에서 “세계는 ... 의미하는 바를 끊임없이 의미한다.”<sup>15)</sup> 인간과 자연의 통일을 발견했던 지점 즉,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 얽힘이 자신의 독립성(인간성,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지점이다.<sup>16)</sup>

양자 세계의 대표적 원리는 ‘양자중첩’(quantum superposition)과 ‘양자얽힘’(quantum entanglement)이다. 양자중첩은 두 개의 양자 상태가 함께 있는 것이고, 양자얽힘은 떨어져 있을 때도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다. 양자는 서로 얽히면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갖는다. 하나가 위를 향하면 다른 하나는 아래를 향하는 상호관계성은 양자역학적 세계의 한 단면이다. 양자역학적 세계관이 인문학 담론의 장에 들어서자, 신화적 신비와 판타지에 머물렀던 우주(다중우주, 무한우주)는 과학적 신비라는 서사 형식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채로운 우주 담론을 펼쳐내고 있다. SF-다매체 드라마에 나타난 무한우주는 비너스(금성, Venus), 우라노스(천왕성, Uranus), 주피터(목성, Jupiter)와 같은 신화적 신비 너머 물리학적 재현 가능성과 탈신화적 서사를 갖춘다.<sup>17)</sup>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의 서사는 양자중첩과 양

---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 eds, Klaus Brinkmann and Daniel O. Dahlstrom, Cambridge UP, 2010, p. 328, p. 498.

15) 김재인, 『데리외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 83. 재인용.

16) Gilles Deleuze,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 R. Lane, The Athlone, 1983, p. 57.

17) 〈독수리자리 너머〉의 주제이며 무대배경인 (무한)우주는 인류가 끈질기게 던진 문제였고, 인류의 자기성찰의 장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우주는 뉘토스와 로고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인류는 자기 밖의 우주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주 개념은 고대 그리스 우주론의 산물이다.

자업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주선 ‘블루 구스’(Blue Goose)의 우주비행사 톰(Tom), 레이(Ray), 그리고 수지(Suzy)는 우주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교통수단 ‘워프 게이트’(Warp Gates) ‘아크엔젤’(Arkangel)에게 우주선 조종 권한을 넘기고 캡슐 안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잔다.<sup>18)</sup> 우주비행사들의 계획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주의 대중교통 수단인 아크엔젤에 진입하여 지구에 무사귀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명할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우주선 블루 구스는 궤도를 이탈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주 정비소에 견인된다. 우주비행선이 우주 정비소에 정박하는 비상 상황에서 잠을 깬 톰은 동료 우주비행사를 깨우고 궤도 이탈 사유를 찾으려고 한다. 이때 톰의 옛 연인 그레타(Greta)가 등장한다. 그레타는 경로 설정의 오류 때문에 의도치 않게 먼 우주에 진입했다고 설명한다. “여기는 세다 섹터의 사움라키 정거장이야.” 그레타는 우주비행사들의 실수가 아니라 아크엔젤의 동기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궤도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지름길을 입력했던 우주비행사 수지는 차원을 이동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상 반응을 보이고 다시 수면 캡슐 안으로 들어간다. 그레타는 우주 뷰(view)를 통해 세다 섹터의 사움라키 정거장 좌표를 톰에게 보여준다. 톰은 우주

18) 워프 게이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가상의 통로이다. 워프 게이트는 게임과 웹툰을 포함한 SF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며, 우주선이 빠르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사용된다. 워프 게이트의 작동 방식은 워프 게이트가 시공간을 구부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으로, 영화 <들편>(Dune)의 항법사들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 워프 게이트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SF의 전유물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대기 줄 때문에 미치겠어”라는 주인공 톰의 대사로 보건대 워프 게이트가 있는 미래에도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우주비행사 수지는 지구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발견했다면서 오리온자리에 위치한 성간 물질로 구성된 국소 거품(Local Bubble)을 통과하는 좌표를 입력한다. 톰은 지구로 돌아가는 지름길 덕분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다며 기뻐한다.

비행선을 수리하는 동안 4년 전 헤어졌던 옛 연인 그레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그레타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밝힌다.

그레타: 사실은 경로 설정 문제로 훨씬 더 멀리 온 거야. 여기는 세터 섹터가 아니야. (우주 좌표를 보여주며) 이긴 사옴라키 정거장 좌표야. 이게 우리 위치에서 본 거야. 지구에서 15만 광년 떨어져 있지.<sup>19)</sup>

툼: 우리가 우주선에서 얼마나 잠을 잔거야?

그레타: 여기 시간으로는 몇 달에 불과하지. 하지만 고향에서는 몇 백 년이 흘러갔어. 돌아가는 경로를 입력한다 해도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

툼: 차라리 내가 죽었다고 말해

그레타: 죽지 않았어. 여기 살아 있잖아, 톼. 나와 함께

툼: 자기는 어떻게 여기에 왔어?

그레타: 같은 경로 설정이 문제지. 다들 그렇게 와. (7:30-9:05)

툼은 수면 캡슐에서 자고 있던 동료 우주비행사 수지를 깨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야”라고 질문한다. 수지는 “아크엔젤의 머저리들, 그리고 꿈 (그레타를 가리키며), 지금과 같은 꿈이었어”라며 자신들 앞에 나타난 자는 그레타가 아니라고 한다. 톼은 수지가 공간 이동 후유증으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수지는 그레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그레타의 목에 상처를 낸다. 톼은 그레타의 상처가 금세 없어진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19) 1광년은 약 9조 4천6백억km이다. 우주선 블루 구스의 우주비행사들은 미래의 시공간 압축 교통수단인 아크엔젤의 경로 설정과 동기화 문제로 15만 광년이라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우연히 무한우주에 진입한다.

톰: 수지의 말이 맞아, 당신은 그레타가 아니야.

그레타: 미안해, 톰. 나는 그레타가 맞아. 사실은 당신은 아직 캡슐 안에 있어, 자고 있지. 이 정거장의 모든 건 당신에게 주어진 시뮬레이션이야.

톰: 그렇다면, 이 가짜 현실과 가짜 그레타는 누가 주입했지?

그레타: 나야. (11:00-12:00)

그레타는 톰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짓말을 계속한다. 톰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라고 그레타를 다그친다. 하는 수 없이 그레타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우주선은 거미줄에 갇혀 있고, 사방에 백골이 난무하고, 동료 우주비행사 수지와 레이는 부서진 캡슐에서 미라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레타는 거미 외계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톰은 우주 지옥의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에 놀란 톰은 캡슐에서의 깊은 잠에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난 톰은 그레타를 다시 그리고 새로이 만난다.

그레타: 안녕, 톰

톰: 그레타? 정말 당신이야?

그레타: 반가워 톰,

톰: 어떻게 된 거야?

그레타: 여기는 세다 섹터의 사움라키 정거장이야. (14:00-14:33)

레이놀즈의 원작 소설에서 그레타는 사움라키 정거장에 가장 먼저 난파했던 외계인이다. 그레타는 톰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환각을 주입해 톰을 도우려고 한다. 그레타는 매번 기억을 새로이 혹은 반복해서 써 내려가는 톰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짓는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주요 극적 행동은 수면 캡슐에서의 깊은 잠, 무한우주에서의 계속되는 사건들, 우주 좌표를 통해 드러나는 시간성과 공간성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에는 내부도 없고 외부도 없지만, 무한우주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그 일부로서의 ‘내부 작용’이라는 극적 행동이 있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극적 행동은 서로 얹혀 서로를 구성하는 내부 작용 그 자체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는 계속 생성 중인 내부 작용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우주비행사들은 세계(우주)의 외부적 관찰자 혹은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려는 자연(세계, 우주)의 일부이다.’<sup>20)</sup> 우주비행사 톰은 무한우주의 우주정거장에서 확정된 경계 없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특정 없이 사건들의 나열과 얹힘에서 재구성되어 매번 새롭게 그리고 계속 등장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톰의 몸들 그리고 각 몸의 경계는 양자물리학자 닐스 보어(Niels Bohr)가 의문시했듯이 당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며 매번 새로이 구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sup>21)</sup> 즉, 무한우주에서 몸들 사이의 경계 짓기는 불가능한 개념일 뿐이다. 〈독수리자리 너머〉는 지속적 횡단성 운동으로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경계를 무력화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몸’은 매번 새롭게 생성된다. 우주비행사 톰의 몸은 인간과 우주 그리고 물질과 의미 사이의 거듭되는 내부 작용을 통해서 재형성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한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의 몸은 고정되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개방성, 풍부함, 가능성으로 사유될 수 있다. 톰의 몸은 본

20) Karen Barad,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P, 2007, p. 67.

21) 박신현, 『캐런 바라드』, p. 22. 재인용.

질적 경계와 속성을 지닌 입자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의미 사이의 ‘현상’ 그리고 ‘엮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톰의 몸은 고정 불변의 몸이 아니라 매번 새로이 경계를 갖는 우주의 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외부적 관찰자도, 독립적 주체도, 혹은 기술의 산물도 아니다. 인간은 무한우주의 일부, 세계의 부단한 재구성 현상이다. 물질성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인간성은 이 글의 2장에서 설명했던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클리나멘적 물질의 ‘무작위 운동’, ‘지속적 과정’ 그리고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무한우주의 양자역학적 엮힘 상태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입자들은 “동일한 현상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톰은 무한우주에서 분리된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sup>22)</sup> 〈독수리자리 너머〉는 몸이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재구성 과정을 재현한다.

수면 캡슐에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톰은 무한우주의 시공간 좌표에 등재된다. 톰의 몸과 무한우주는 내부 작용으로 서로를 구성한다(몸↔무한우주). 톰의 몸은 거듭되는 내부 작용을 통해서 재형성되는 물질과 의미의 엮힘 현상이다. 무한우주에서 매번 재구성되는 톰의 몸은 내부 작용을 통해 경계와 속성을 획득하는 현상이다. 끊임없이 신체 경계를 재작업하는 우주비행사들의 몸은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자연(우주)의 본질적 통일성(unity)이 실현된다. 인간은 외부적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의 진행되는 재구성의 일부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내부 작용은 삶(세상의 시작)과 죽음(세상의 끝)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성을 재현한다.

물리학에서 가장자리 또는 경계는 존재론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확정적이지 않다.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서 노래했듯이,

---

22) Karen Barad, op. cit., p. 377.

“우리는 존재의 총체 바깥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그것은 가장자리를 갖지 않으며, 그래서 끝과 한계가 없다.”<sup>23)</sup> 인간의 언어 또한 본질적으로 확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몸 역시 경계가 고정 불변한 몸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몸이다. 무한우주에서 우주비행사 톰의 몸 경계는 본질적 애매성, 불확실성, 분리 불가능성, 동시성, 비결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그리기 위해 우리는 윤곽만 그리면 된다. ... 윤곽은 확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은 그 주위에 어떤 선을 지나지 않는다. 그런 선은 없다. 그것은 오직 어떤 선이 있다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구성 안에만 있다.<sup>24)</sup>

〈독수리자리 너머〉는 몸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또한 비재현주의적으로 드러난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시간은 선형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 관계성과는 다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또한 내부 작용이다. 공간성과 시간성은 거듭되는 내부 작용의 역동성을 통해 물질적, 담론적 경계의 재형성과 구성적 배제 안에서 생산되고 재구성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공간성과 시간성은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같은 현상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시공간물질화(spacetime mattering)의 재구성이다.<sup>25)</sup> 시공간물질화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주

23) Lucretius, L. 963-4.

24) Feynman, R. P., Leighton, R.B. & Sands, M. *The Feynman Lectures of Physics. Vol I: Mainly Mechanics, Radiation, and Heat*. New York: Basic Books, 2010, p. 36.

25) Karan Barad, “Troubling Time/s and Ecologies of Nothingness: Re-Turning, Re-Membering, and Facing the Incalculable,” *New Formations: A Journal of Culture/Theory/Politics* 92, 2017, pp. 56-86.

장하듯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시간과 공간은 내부 작용의 끊임없는 물질적 재구성 현상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시간은 객관적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수면 캡슐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우주비행사들에게 어렴풋한 기억은 있지만, 이들에게 고정된 시간은 없다. 무한우주의 한 우주정거장에서, 공간의 물질들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은 존재할 수 있지만, 과거의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미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다. 이들이 기억하는 사건들의 순서를 나열한다면, 그 순서가 시간일 수 있다.<sup>26)</sup>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무한우주에서 시간은 우주 좌표에 찍힌 점으로 특징된다. 그레타는 우주 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좌표로 보여줄 뿐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인간의 몸과 무한우주 그리고 공간성과 시간성은 내부 작용의 역동성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현상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무한우주는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통해 재형성되는 개방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은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현상에 의해 생산된다. 무한우주는 시간 척도를 만들지도, 해석하지도, 시간을 지배하지도 않는다. 시간성과 공간성은 구성되고 재형성되는 물질의 역동성과 관련 있다. <독수리자리 너머>의 공간성은 내부 작용으로 생산된다. 이때 공간은 물질을 담는 용기가 아니다. 물질은 세계 안에 경계를 갖는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 내부 작용이 특정한 경계를 시행하면 구성적 배제가 경계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을 연다. 경계가 재형성되면서, 내부와 외부가 다시 만들어진다.

26) 우주의 시간은 148억년이나 흘렀지만, 우주에서 한 인간의 평생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물리적, 과학적, 측량적 의미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각 현상은 겹겹이 주름 잡힘을 통해 이전의 명칭을 상실한다. 각 현상은 거둬진 내부 작용에 의한 역동성의 일부가 된다. 공간성은 경계의 물질적 재형성의 계속되는 과정이며, 공간적 관계들의 거둬지는 재구조화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시공간성은 ‘경계를 무력화’하는 한 재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하는 세계(무한우주)는 시공간물질 다양체(spacetimematter manifold)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양체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으로 거둬 재형성된다. 세계(우주)는 이러한 얽힌 물질화의 열린 과정이다. 시간성과 공간성은 열린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세계는 역동적 관계성을 통해 개방된 채 생성 중인 것이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우주선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톰의 과거, 현재, 미래는 거둬져서 주름 잡히고 재작업되어 고정되지 않는다. 수면 캡슐에서의 깊은 잠과 우주정거장에서 그레타와의 만남이라는 극적 행동은 비결정성에 의해 열리는 다양한 가능성이다.

무한우주와 등장인물들 사이의 내부 작용은 시공간물질을 재형성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가능성 또한 생성한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내부 작용으로 인해, 과거와 미래는 서로 얽혀 서로를 재형성한다. 이러한 물질적 얽힘으로 과거도 미래도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내부 작용과 물질적 얽힘 차원에서 우주 진화는 시공간성뿐만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성의 유기적 변화는 지각과 자율 활동의 증가, 기억의 연장과 의식의 확대, 유기적 잠재력과 같은 인간성의 변화와 분리 불가능하다. 라이프니츠(G. Wilhelm Leibnitz)가 지적했듯이, 인류발달과 자기발견은 우주적 과정의 일부이다.<sup>27)</sup> 무한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겪는 사건, 이들의 반복되는 몸, 시간성과 공간성, 무한우주와 우주비행사의 물

27) Mumford, op. cit., p. 58.

질적 얽힘은 클리나멘적 운동을 하는 세계의 비결정성과 무한성의 사유를 심화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 나타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경계 무력화 방식은 인간성과 물질성의 내부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나오는 말

우주, 무한우주, 다중우주, 평행우주와 관련된 우주 서사는 신화를 포함한 판타지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최근 SF에서도 주요 형식이 되었다. 이처럼, 문학 서사에서 우주는 인류에게 아주 오래된 서사이면서 새로운 서사이기도 하다. SF 작가 테드 창(Ted Chiang)에 의하면, 판타지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다.<sup>28)</sup> 과학적 사유로써 우주를 고찰하는 사회적 배경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이전의 판타지는 우주를 무대배경으로 하는 서사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판타지에서 우주는 오래된 신비이고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다. 반면, SF는 인간이 우주를 (과학적, 천체 물리학적, 혹은 양자역학적)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SF는 과학을 통해 우주를 탐구하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무한)우주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논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이해와 자기발견 등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주 서사를 갖춘 <독수리자리 너머>는 인간성과 물질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무한우주는 무대배경이면서 동시에 등장인물들과 얽혀 의미를 생성하는 생동하는 물질이며 ‘전체로서의

28) 2009년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PIFAN) 초청 강연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작품은 무한우주의 시공간성을 통해 인간과 세계(우주)의 비결정성, 동시성, 무작위성, 상호관계성과 같은 양자역학적 개념에 인문학적 서사를 부여한다. 무한우주의 시공간에서 몸들의 경계, 사건들의 경계, 그리고 존재자들의 경계는 결정되더라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사건, 경계, 존재자가 현존하지 않는 타자성일지라도 없어진 것은 아니고 되돌아오고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를 관통하는 물질적 얽힘을 반증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동일 지평에서 고찰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물질의 비결정성'은 인간성과 물질성의 분리불가성이라는 동시 존재성을 드러낸다. 무한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하는 사건들 그리고 현상들은 원자라는 최소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의 끊임없는 여정을 재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우주의 어느 한 우주정거장은 정지된 세계가 아니라 부단한 생성의 세계이다. 무한우주의 우주비행사 톱의 몸들은 각 사건에서 원자 결합 상태에 따른 차이의 산물이다. 매번 새로이 등장하는 우주비행사 톱은 원자들의 배열처럼 생명과 생성의 재구성적 현상을 재현한다. 〈독수리자리 너머〉는 인간과 우주의 얽힘에서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SF 예술 형식의 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현실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특수한 실존 형식이란 없다. 맑스의 말처럼, 결핍은 없으며, 다만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적 존재로서의 겪음(passion)이 있다.<sup>29)</sup>

이 글은 과학기술시대의 인간성을 물질성과의 관계성에서 살펴 보았다. 〈독수리자리 너머〉에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세

29) Gilles Deleuze, op. cit., p. 34.

계'는 서로에게 응답하는 능력으로 비결정적 존재성을 드러내었다. 얽힘, 상호관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결성, 비결정성은 고대에서부터 논의된 인간(사물)의 본성이었고, 이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탁월함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아레테에 이르는 여정(지속적 과정)이다. <독수리자리 너머>는 무한우주에서 이러한 여정을 통해 본래의 인간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SF-다매체드라마의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Beyond the Aquila Rift*. In *Love, Death & Robots*. Created by Tim Miller and Alastair Reynolds. Netflix, 2021.
- Reynolds, Alastair. *Zima Blue and Other Stories*, 2006.
- \_\_\_\_\_. *Alastair Reynolds*. <<https://www.alastairreynolds.com/>>

### 2. 단행본

- 박신현. 『캐런 바라드』. 컴북스캠퍼스, 2023.
- Aristotle. *Ethica Nicomachea*. Clarendon Press, 1920.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P, 2007.
- Deleuze, Gilles.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 R. Lane. The Athlone P, 1983.
- Epicurus. *Letter to Herodotus*. Trans. Robert Drew Hicks, 1925. <[https://en.wikisource.org/wiki/Letter\\_to\\_Herodotus](https://en.wikisource.org/wiki/Letter_to_Herodotus)>
- Feynman, R. P., Leighton, R. B. & Sands, M. *The Feynman Lectures on Physics, Vol 1: Mainly Mechanics, Radiation, and Heat*. Basic Books, 2010.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 Eds. Klaus Brinkmann and Daniel O. Dahlstrom. Cambridge UP, 2010.



- Homer, *The Odyssey*, Trans. Emily Wilson, W. W. Norton & Company, 2018.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Trans. Martin Ferguson Smith,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1.  
Mumford, Lewis, *The Myth of the Machine Volume One: Technics and Human Development*, A Harvest Book, 1967.  
Plato, *Phaedo*, Trans. Benjamin Jowett, <<https://classics.mit.edu/Plato/phaedo.html>>

3. 논문, 신문기사, 기타자료

- 김재인, 『틀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Barad, K, “Troubling Time/s and Ecologies of Nothingness: Re-Turning, Re-Membering, and Facing the Incalculable,” *New Formations: A Journal of Culture/Theory/Politics* 92, 2017, pp. 56–86.  
Deleuze, Gilles, “Lucretius and Naturalism,” *Contemporary Encounters with Ancient Metaphysics*, Trans. Jared Bly, Edinburgh UP, 2017, pp. 245–253.  
Gamble, Christopher, Hanan, Joshua & Nail, Thomas,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24.6, 2019, pp. 111–134.

(투고일: 2024. 5. 12 심사완료일: 2024. 6. 19 게재확정일: 2024. 6. 21)

홍은숙  
소 속: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주 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The Infinite-verse in *Beyond the Aquila Rift*:  
The Intra-action between Humanity and Materiality

Hong, Eun-Sook

This paper develops ancient discussions, including ancient atomism and infinite cosmology,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ty and humanity. The ontological indeterminacy of the material world has been discussed from antiquity to quantum physics. The material world of quantum physics behaves as a wave when not observed, and as a particle when observed. The interaction of observation and interest causes changes in the material world, giving rise to new phenomena.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one can derive 'a relational ontology of humanity and materiality' and 'the inseparability of humans and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e and human beings in *Beyond the Aquila Rift* is not divided into two distinct section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s. The way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re neutralized can be understood as the intra-action of humanity and materiality. The events and phenomena in the infinite-verse represent the constant journey of electrons that make up the smallest unit of matter, the atom. *Beyond the Aquila Rift* introduces a new form of science fiction by revealing the nature of humans and things simultaneously.

Key words : *Beyond the Aquila Rift*, intra-action, infinite-verse, inter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materiality